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된 날

영호남 지체장애인 300여명 경주서 '우리는 하나' 연합캠프 펼쳐

영·호남지역 10개 장애인복지관 소속 정신지체장애인들이 7월 13~15일 경주시 일원에서 연합캠프를 열었다. 사진은 레크리에이션 음악에 맞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7월 13일 저녁 경주 한화콘도 지하 강당. 장기자랑에 나선 영·호남 지역의 정신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 450여명이 음악에 맞춰 꾸밈없는 몸짓을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들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종광) 주관으로 열린 영·호남 지역 정신지체장애인 연합캠프 '우리는 하나' 참석자들.

복지관별 장기자랑 시간. 포항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외숙, 김지혜, 윤지숙 양이 1년간 연습한 오카리나를 연주했고,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빨간 머리수건까지 쓰고 등장해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고, 음악만 흐르면 몸을 흔드는 모습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이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맛본 장애인들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재미있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우리는 하나'는 정신지체장애인이 외적 활동과 경험에서 느끼는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연합 캠프로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2002년 4개 복지관의 참여로 시작된 연합캠프는 올해 규모가 커져 포항, 영주, 구미, 상주, 경남, 덕산, 남원, 광산구, 대구 등 영 호남 10개 복지관에서 300여명의 정신지체장애인와 1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장기자랑으로 우정 나누고
불국사와 석굴암 참배
"세상 경험은 중요한 공부죠"

문화체험과 역사기행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캠프는 약 300여명의 영·호남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입소식 후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를 생전 처음 둘러봤고 둘째 날에는 불국사와 석굴암도 참배했다. 혹여 길을 잃을까 손을 꼭 잡고 담당 선생님을 따르는 캠프 참가자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다. 그러나 15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담당 복지사 선생님들은 초 긴장상태.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인지능력은 4~7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은 지체장애인들에겐 그 어느 순간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시간. 연합캠프에 처음 참가한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에도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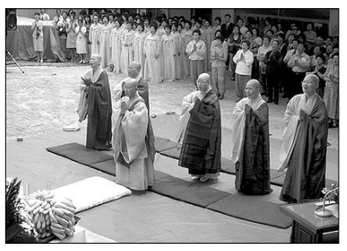
이미 몇 해째 참석한 장애인들은 지난해 만난 다른 지역 복지사 선생님과 친구들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4~7세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진 정신지체장애인들이 1년 전에 만난 친구와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연합캠프가 이들에게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헌 직업재활팀장은 "교정, 교육, 재활이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장애인들이 연합캠프 등을 통해 사회경험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법라 스님은 "장애인들과 거리감 없이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너와 내가 없고 영호남이 없이 하나로 어울리는 맑은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단신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탑 봉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는 7월 14일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우주탑 봉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봉탑의례, 봉안 및 정근, 축가, 혜원 주지 스님 법어 순으로 진행된 이날 우주탑 봉안식에는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혜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미 갖추어진 주인공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불사의 원만 회향은 물론 일상의 모든 일들이 공부 재료이고 깨달음으로 나를 이끄는 스승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개성·재능·끼 맘껏 펼쳐봐"
부산 삼광사 청소년가요제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7월 22일 오후 5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제6회 바다사랑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한다.

바다사랑 실천 운동 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개성과 재능, 끼로 똘똘 뭉친 청소년들의 열기를 여름 바다의 시원함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에는 부산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바다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가요와 춤을 선보인다.

2부 행사인 바다사랑 삼광사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에서는 최창진 삼광사 학생회 회장이 결의문을 통해 봉사단 발대식의 각오을 다지게 된다.

바다사랑 청소년 가요제에는 그룹사운드 모피딕스, 그룹사운드 매니아 등이 특별 출연하며, 대상 1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 금상 1명에게 부산광역시장상 등이 시상된다. (051)808-7111 천미희 기자

영천 만불사 산사음악회

영천 만불산 만불사 대웅전에서 안데스 음악과 국악이 만난다.

7월 20일 오후 7시, 만불사가 개최하는 세 번째 달맞이 산사음악회에서 1990년 에콰도르에서 결성된 유명한 안데스 음악 그룹 카루난(KARU NAN, 먼길이라는 뜻)이 출연하여 에콰도르,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등의 전통음악과 원주민들의 다양한 리듬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국악실내악단 '여의'와 함께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과 페루의 전래 민요 '엘콘도파사(철새는 날아가고)'를 협연한다. 모두 남자로 구성된 카루냔은 그들의 전통인 길게 땋은 머리와 화려한 색깔의 전통 복장, 신발 등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색다른 볼거리를 함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찬불가로 포교하는 시명, 도신, 범능 스님과 구미 불로사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부산의 주말 불교계가 책임진다

'주말복지관 지원사업' 16개중 6개 개관 운영

주 5일제 근무의 여파로 주말 복지에 대한 욕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부산지역 주말 복지를 책임지게 된다.

2005년 상반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주말복지관 지원사업' 선정 기관 16개 중 6개 기관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선정되는 성과를 낳으면서 주말 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친절한 봉사로 주목

이미 개금복지관, 용호복지관의 경우 주말 복지 사업을 시행해왔을 정도로 주말 복지에 대한 앞서가는 사고와 실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로그램 덕분에 개금복지관, 금정구복지관, 낙동복지관, 두송복지관, 몰운대복지관, 용호복지관 등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복지관은 모두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이들 복지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 금정구복지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방임가정 아동 지 덕 체 함양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공부와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형, 누나가 됨으로써, 중학생은 자기 성장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형제처럼 짝을 이룬 이들은 1년 동안 함께 수영, 음악레크레이션, 다도 교실, 문화지탐방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방임되는 가정의 청소년,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송복지관의 '주말 3색 파워 프로젝트'는 거동불편 노인, 주말 부양이 필요한 아동, 여가 활용의 기회를 찾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지역 주민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은 "주말에 생기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연극하며 지역 화합 이뤄요"

'용호 햇빛 연극단' 발대식
10월 '오륙도축제' 때 첫 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지역 주민들이 연극배우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7월 8일 용호복지관(관장 혜총) 강당에서 열린 '용호 햇빛 연극단' 발대식(사진)이 그 자리. 이들은 소외된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연극단을 꾸린 아마추어 예술인들이다.

평소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보다는 연극을 통한 봉사에 관심을 가져왔던 남구 연극회 박동민 회장과 지역민이 지역민의 복지를 이끄는 주인이 되게 하자는 용호복지관이 의기투합해 시작된 햇빛 용호 연극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무대 공연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박동민 단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꿈,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극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극 봉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멀리 금정구에서 찾아온 최종원(52) 씨의 각오는 더욱 특별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연극을 하면서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며 "기쁨과 슬픔 등 가슴속에 품었던 것을 발산하며 이웃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8일 발대식을 가진 용호 햇빛 연극단은 박동민 단장의 지도로 매주 금, 토요일 연극 수업을 진행하며 올 10월 열리는 지역 축제인 '오륙도 축제'에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각오로 연습에 들어간다. 또한 양로원 방문 연극, 소녀소년가장을 위한 연극공연 등 문화 봉사를 펼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시·음악 어우러진 법회 보셨나요?

대구교사불자회 70여명 마련
어린제자들 동참 분위기 더해

7월 12일 밤 능인고등학교 반야전, 대구 초중고 교사불자들의 풋풋한 노랫소리와 시낭송, 은은한 색소폰 소리가 어우러져 화엄세계를 연출했다.

2003년 9월부터 아함경 강독법회를 이어온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신연섭)가 1학기 종강법회를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작은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사진). 1부 예불과 법회, 2부 시와 음악 한마당, 3부 찬불가 따라 부르기로 이어진 이날 법회에는 능인고등학교 교법사 아용 스님을 비롯해 대구시내 초·중·고 교사 불자 70여명이 참석했다.

2부 시와 음악 한마당은 대구시내 교사 불자들의 독창과 자작시 낭송, 색소폰 연주, 초등학교 어린 제자들의 찬조 출연으로 조촐히 꾸며졌다. 비록 무반주에 자그마한 카세트라디오를 이용한 무대연출에 아마추어 교사들의 공연이었지만 잔잔한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다.

연발 하는 실수는 사회자 손경제(경신중) 교사의 재치 있는 한마디에 웃음으로 승화됐고, '꾀꼬리 친구들'로 통하는 어린이 중창단의 해맑은 공연은 입가에 싱그러운 미소가 피어오르게 했다.

자작시를 낭송한 능인고 구본섭 선생은 약 15년 교사생활을 통해 학생을 엄히 가르치는 것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가르쳐야 함을 배웠다며 경험담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배지선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형준(근본불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5년 7월 1일~ 2005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ATURAL 묘향산 전 록 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 의 담 당 동 의 학 박 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 771-2985 • 제조원 :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